



불교 유산의 흔적 (파키스탄)



BUDDHIST
HERITAGE TRAIL
PAKISTAN





(Korean Language)

불교유산의흔적

- 페샤와르 박물관의 흔적
- 스와트 박물관의 흔적
- 탁실라 박물관의 흔적
- 카라코람 고속도로/길기트발티스탄의 흔적

명소



1. 스폴라 스투파
2. 페샤와르 박물관
3. 고르카트리 페샤와르
4. 샤바즈가르히요암석회적령
5. 타호티바이 스투파와 수도원
6. 자말가르히 스투파와 수도원
7. 갈라가이 암각화

8. 스와트 박물관
9. 자하나바드 부처님
10. 부카라 i & iii
11. 싱가르다르 스투파
12. 암루크다라 스투파
13. 김바트 스투파
14. 라니갓 스투파

15. 시르수크
16. 바말라 스투파
17. 진나왈리데리 유적지
18. 바달푸르 스투파
19. 모흐라무라두 스투파와 수도원
20. 피플란 스투파
21. 자울리안 불교 스투파와 수도원
22. 시르캅 유적지
23. 탁실라 박물관
24. 다르마라지카 스투파와 수도원
25. 비르마운드
26. 만칼라 스투파
27. 반파키란 스투파 이슬라마바드
28. 아쇼카 암석 척령
29. 만세라 암석 척령
30. 샤티알 암각화
31. 칠라스 암각화(길기트)
32. 카르가 부처님
33. 만탈불상, 사포로

간다라 문명

고대 페샤와르 계곡이자 유명한 간다라 예술을 탄생시킨 불교 문명의 요람인 간다라는 리그베다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기원전 6세기 다리우스 시대 비문에 따르면 이 곳이 아케메네스 제국의 지방 중 하나였다. 기원전 6세기부터 최초의 수도인 푸쉬칼라바티(발라히사르-차르사다)이다. ADSMS 기원전 327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침략을 당했다. 이후 1세기 에푸사푸라 또는 페샤와르를 수도로 세운 마우리아인, '인도-그리스인, 스키타인, 파르티아인 그리고 쿠샨왕조가 차례로 통치를 하였다. 7세기에 샤히 왕조는 훈드에 수도를 세웠으며 서기998년경에 가즈나비 왕조의 침략까지 중심지로 유지 되었고 침략 후 간다라의 통치가 끝났다. 영국, 이탈리아, 파키스탄 학자들이 발굴한 타흐티 바이, 사흐리 바흐를, 자말 가히, 라니 가트, 아지즈 테리, 부카라, 세투 스투파, 안단 테리, 차트 파트, 담콧, 칸푸르 등과 탁실라 계곡에 있는 수도원의 유적지와 유물은 페샤와르, 마르단, 푸쉬칼라바티, 탁실라, 스와트, 디르의 박물관에 최상급 간다라 예술 컬렉션을 제공하였다.

간다라 미술

간다라의 세계적인 미술은 그리스로마인, 인도인, 그리고 지역 예술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 지역에 기원전 1세기에 등장하여 1세기에 강화되었으며 5세기까지 번성하고 서기 8세기까지 지속되었다. 간다라 미술의 목적은 주로 스투파와 수도원에 안치된 석재, 치장 벽토, 테라코타 및 청동으로 조각되고 만들어진 이미지를 통해 불교를 전파하는 것이었다. 기원후 6세기에 간다라를 방문한 중국인 순례자 하이엔창에 의해 이러한 수 천개의 스투파들이 언급되었다. 이 미술의 주요 초점은 부처님의 인생 이야기와 개인 모습, 그의 탄생 이야기(혹은 자타카) 및 보살(미래의 부처님)이었다. 깨달음의 부처님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부처님이며 탄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에피소드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매혹적으로 조각되어 있다. 부처님의 인격에서 영감을 받은 예술가들은 부처님과 영생을 준 그리스, 로마, 페리시아의 모티브와 기술을 가져 왔다.

부처님의 생활 이야기는 불교 경전에 따라 조각되어 있다. 이것들은 페샤와르 카니슈가 황제 시대에 조각되었다. 사실상 간다라의 조각들은 대승불교 신앙의 경전과 철학을 돌로 변형시켜 더 낭만적으로 만들어 실크루트를 이용하여 순례자와 상인을 통해 극동, 중국과 그 너머로 종교가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런 조각품들은 숭배자들이 둘러보던 스투파의 기단, 벽, 계단에 고정 되어 있었다. 또한 스투파 돔 위에 있는 정사각형 단단한 상자인 하르미카에 부처님의 인생이야기가 새겨져 있다. 이야기들은 석판에 새겨져 부처님의 유물 관에 넣어 예배를 하던 스투파에 봉안되어 있다. 실제로, 쿠샤나 통치자의 토지 산물인 간다라 미술은 동시대의 인도 마투라 예술에 비해서 훨씬 더 매혹적이고 복잡하다.

불교 유적

석기 시대부터 영국 시대까지 수많은 문화와 문명의 도가니였던 파키스탄에는 역사적인 유적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인더스 계곡 문명과 간다라 문명이다. 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 박물관 갤러리에는 간다라 미술 작품이 전시 되어 있다. 우리는 불교유산을 둘러보고자 하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탐방로를 개발하였다.

- | | |
|------------------------|-------------------------|
| 가. 탁실라 및 주변지역(편자브) | 나. 페샤와르와 주변지역(퀘이버파크툰화) |
| 다. 스와트 및 주변지역(퀘이버파크툰화) | 라. 카라코람 고속도로 & 길기트 발티스탄 |

이 유산탐방로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중 일부는 다음 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다.



스폴라 스투파

스폴라 스투파는 케이버파크툰화의 잠루드 근처 자라이 마을에 있는 2세기 불교 기념물이다. 이것은 간다라 공예품에서 자주 묘사되는 위대한 '쿠산제국'과 불교의 연결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사실상 간다라 조각물들이 바로 이 스투파에서 발굴되었고 지금은 페샤와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카니슈가의 후원으로 일어난 격렬한 종교부흥에 대응으로 불교 선교사와 순례자들이 나타났다. 몇몇 불교 수도원들이 카이버고개의 안식처 안에 동지를 틀었다. 카이버 스투파는 폐허속에서도 그날의 영광을 보여준다.

페샤와르 박물관

페샤와르 박물관은 케이버파크툰화 지방의 수도인 페샤와르에 위치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고대 간다라 제국 시대의 불교 미술품들로 유명하다. 박물관은 샤지키테리 페샤와르, 세흐리바흐롤, 마르단에 있는 타흐티바이, 자말가르히 등의 주요 간다라 유적지에서 발굴된 간다라 조각품을 보관하기 위해 1907년 11월에 영국학자들에 의해 설립 되었다. 페샤와르 박물관은 고대 불교 석조 조각 및 금속판, 건축 요소, 치장 벽토, 테라코타 조각상, 유물함 및 세면 용품 등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간다라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다. 선정된 미술품은 본관, 박물관 1층 동, 서쪽에 있는 갤러리 그리고 건물 서쪽에 전시 되어 있다. 현재 페샤와르에는 불교 기념물이 남아 있지 않지만 페샤와르 박물관은 간다라 불교 미술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곳 중 하나이다.

박물관 시간:

토~ 목

오전 9시- 오후 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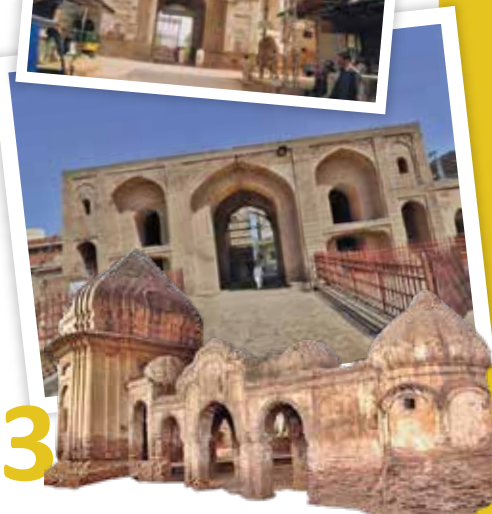
금요일 휴일.

입장료:

파키스탄인: 10루피

외국인: 300루피





3

고르 카트리 페샤와르

고르 카트리 페샤와르는 고대 유적지에 지어진 무굴 시대 대상 여인숙 내에 위치한 페샤와르의 공원이다. 페샤와르시의 가장 높은 곳 중 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에는 고라크나트 사원이 자리 잡고 있고, 단지의 남쪽과 서쪽에는 수도실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1917년에 지어진 소방서 건물이 있다. 고르 카트리의 고고학 유적지는 고대 페샤와르의 성벽 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 박물관은 고르 카트리 단지 내에 설립 되었으며, 단지의 기존 구조는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의 사랑하는 딸인 베검 자한아라에 의해 1640년에, 중앙 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페샤와르로 건너 온 상인들을 위한 대상들의 숙소로 세워졌다. 박물관은 고고학 및 민족학이라는 두 개의 작은 갤러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번째 갤러리는 최근 영국 시대의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추가 되었다. 이 박물관의 고고학 갤러리는 고르 카트리 (Gor khatri)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의 형태로 페샤와르 계곡의 연속적인 중 단면을 보여준다.

샤바즈 가르히

샤바즈 가르히는 퀘이버파크툰화 의 마르단 지역에 위치한 마을이 자 유적지이다. 한때 이 도시는 수도원과 스투파로 둘러싸인 번성한 불교 도시였다. 이 마을에는 고대 바위 비문이 두 개의 큰 바위로 잘려 카로스티 문자로 쓰여져 있다. 남아시아에서 최초의 글쓰기의 사례로 보여지며 역사적으로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 것은 기원전 3 세기(기원전 272~231년)에 카로스티 문자에 새겨진 유명한 마우리아 황제 아쇼카의 통치 기간에 건설 되었다. 비문은 2004년1월30일 유네스코 세계 유산 잠정목록 문화 범주에 등재 되었다.



4

타흐티바이불교수도원

흔히 타흐티바이 (형제왕좌)로 잘 못 발음되는 “물샘의 왕좌”는 케이버파크툰화의 마르단 지역에 있는 고대 불교 수도원의 인도-파르티아 고고학 유적지이다. 이 지역은 간다라 전역에서 가장 인상적인 불교 유물 중 하나로 간주되며 “예외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고 마을 시장에서 2km 떨어진 작은 언덕 꼭대기 약 500피트에 위치하고 있다. 이 불교 수도원은 1세기에 발견되어 7세기까지 사용되었다. 타흐티바이는 198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 단지에는 네 개의 주요 지역이 있다. 중앙 안뜰에 위치한 스투파의 집합체인 스투파 코트, 수도원의 회의실, 뜰을 둘러싸고 있는 개인 수도실, 회의실 및 식사 공간이 있다.



자말 가르히

자말가르히는 케이버파크툰화 주 마르단 지역에서 13km 떨어진 카틀랑 마르단 도로에 있는 작은 마을로, 자말 가르히는 1세기부터 5세기까지 불교 수도원이었다. 뽁뽁하게 모여있는 예배당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수도원과 주요 스투파가 있다. 자말 가르히의 유적은 1848년에 영국 탐험가이자 고고학자인 알렉산더 커닝햄(Sir Alexander Cunningham)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1871년에 크롬텐(Cromten) 중위가 이 장소를 발견하여 다수의 불교 조각품을 발굴 하였다. 현재 발굴되었던 유물들은 영국 박물관과 캘커타에 있는 인디언 박물관에 소장 되어있다. 수도원에서 카로시티 비문도 발견 되었으며 현재 페샤와르 박물관에 보관 되어있다.



7



갈레가이 암각화

스왈트 지역의 사이두 샤리프로 가는 큰 길 오른쪽에 있는 바위에 조각된 불상이 있다. 이 불상 옆의 동굴에도 잔재가 조금 남아있다.



스왈트 박물관

스왈트 박물관은 밍고라-사이두 샤리프 도로에 위치해 있다. 이 박물관에는 스왈트 불교 유적지에서 발굴된 막대한 간다라 조각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원래 박물관은 1958년에 로마 (Museo Nazionale d'Arte Orientale)에서 쌍둥이 박물관이 개관 되었을 때 왈리 스왈트(스왈트의왕자)과 이탈리아 선교부의 공헌으로 'DOAM'에 의해 건설되었다. 박물관의 현재 건물은 이탈리아 건축가'Ivano Marati'와'Candida Vassallo'가 설계했으며 'Naples Federico II' 대학의 기술자와 페샤와르 공과대학의 협력으로 건설되었다.



박물관 시간:

토~목

오전9시- 오후5시

금요일 휴일.

입장료:

파키스탄인: 10루피,

외국인: 300루피



8

제하나바드 부처님

제하나바드 (샤코라이)마을 남서쪽 언덕에 우뚝 솟아 있는 붉은색 높은 바위 면에 새겨진 거대한 앉아 있는 불상이다. 그것은 망글라와 북동쪽 5km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거대한 불상은 말람자마로 향하는 오른쪽 길에서도 보인다. 코가 손상된 것을 제외하고는 좁은 테라스 위의 높은 위치에 있어서 잘 보존 되어있다. 불상 높이가 약7미터이며 서기7~8세기에 간다라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조각품이 확실하다. 간다라 유적지 외에도 카라코람 고속도로(실크로드)를 따라 여러 유적지들이 있다. 샤티알과 칠라스 암각화, 길기트의 카르가 부처, 스카르두의 사드파라 부처, 가니쉬 암각화는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불교의 발자취이다.





10

부카라 i & ii

부카라 스투파는 스와트의 도시인 사이두 샤리프 근처에 있는 중요한 불교 스투파이다. 이 스투파는 마우리아 황제 아쇼카에 의해 지어졌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금 늦은 기원전 2세기 후로 추정된다. 이 스투파는 다음 세기에 걸쳐 다섯 차례 확장 되었고, 매번 이전 구조를 다시 짓고 봉인하였다. 스투파는 건설 및 확장의 다양한 단계에 대해 배우기 위해 이탈리아 사절단에 의해 발굴되었다. 이 임무는 스투파가 기원전 2세기 동안 헬레니즘 건축 장식을 추가하여 "기념비화"되었다는 것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싱가르다르 스투파

인도대륙에서는 가장 큰 스투파는 스와트 사이두 샤리프로 가는 길에 싱가포르 마을(갈레가이와 바리콧 사이에 있는 마을)에 있다. 이 스투파는 불교시대의 유물이며 스와트 계곡의 많은 고대 유물 중 하나이다. 스투파는 고대 스와트의 왕인 우타라세나(Uttarasena)에 의해 지어졌고, 구조는 큰 돌과 얇은 슬레이트 층으로 만들어졌다.



11

12

암루크 다라 스투파

암루크 다라 스투파는 스와트 계곡에 위치 하고 있으며 암루크 다라에 있는 간다라 문명의 일부이다. 스투파는 3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1926년에 헝가리-영국 고고학자 'Aurel Stein'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나중에 60년대와 70 년대에 'Domenico Faccena'에 의해 연구되었다. 스투파의 기초는 약 4미터 두께의 네모난 주춧돌이다. 그 위에 높이 7m, 지름 21m의 반구형 돔이 있어 먼 곳에서도 볼 수 있다.



검바트 스투파

검바트 스투파는 칸다그 계곡의 비르콧(현지에서는 바리콧으로 알려짐)에서 남쪽으로 9km 떨어져 있다. 이것은 스와트의 가장 잘 보존된 불탑 중 하나이다. 그것은 창문이 있는 약 12피트의 정사각형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배 중 성스러운 신상을 둘러 볼 수 있도록 사방이 좁은 통로로 둘러싸여 있다. 검바트 앞에는 무희(춤추는 사람)의 저택이라는 뜻을 가진 칸자르 콧이라는 큰 건물이 있다. 장소는 아름답지만 현지인의 도움 없이 걷는 것은 좋지 않다. 길에서 스투파까지 30분 정도 걸어야 한다. 스투파 유적과 수도원의 일부 유적도 있다.



라니 갓 불교 유적

라니 갓 (파슈토어로 돌의 여왕)은 파키스탄 케이버파크툰화 부네르 지역에 위치한 간다라 문명에 속하는 2500년 된 불교 유적지이다. 라니 갓은 이 지역의 불교 역사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 이 장소는 언덕 꼭대기에 있으며 일본이 건설한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 갈수 있다. 주요 명소로는 고대인들이 숭배하기 위해 조금 먼 곳에 세운 큰 바위 스투파가 있다. 도시나 마을은 아름답게 디자인 되었으며 지역 산의 돌들이 널리 사용되었다. 라니 갓은 M1 및 N35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스와비 시에서 약 20km, 페샤와르와 이슬라마바드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다.



시르수크

기원후 1세기 후반에 세워진 쿠샨의 시르수크는 지진으로 파괴된 시르갑 유적에서 주민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세워졌거나 쿠샨 정복을 증명하기 위한 새로운 수도로 세워졌을 것이다. 이 곳은 현지 농업으로 인해 밭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밭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한쪽 벽을 감싸고 있는 개울 주변의 좁은 요새들은 쿠샨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무굴 제국의 황제 악바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동전 저장을 보여 줌으로써 도시가 적어도 1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능을 했음을 보여준다.





16



바말라 스투파

바말라 스투파는 동쪽에 있는 하로 계곡의 맨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르숙에서 북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만세라를 향하는 북동쪽 경로에 있다. 삼면이 하로 강에 의해 보호되며 강은 이 지점에서 하부 주변을 가파르게 휘어 흐르며 네 번째 면에는 언덕이 있다. 수도원 설립은 4세기 또는 5세기에 건설되었으며 동쪽에 잘 지어진 수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쪽에 있는 주 스투파가 줄리앙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거의 같은 패턴이며, 봉헌 탑과 예배당으로 둘러싸여 있다. 주스투파는 독특하게 십자형의 평면을 구조이고 위의 돔을 위한 큰 정사각형 기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4면 모두에 계단을 위한 조명 돌출부가 있다. 스투파의 핵심은 작은 자갈과 진흙이 채워진 무거운 석회암 블록으로 규칙적으로 놓여 있으며, 표면은 반재석 석조이다.





진나 왈리 데리 사이트

이 곳은 베라 마을 근처 탁실라 박물관에서 북동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하로강 왼쪽 제방에 있다. 수도원은 계획대로 정사각형이며, 17개의 수도실과 2개의 입구로 구성되어 있다. 수도원의 정문은 서쪽에 있으며, 동쪽에 있는 주 스투파와 뒤쪽 통로로 통한다. 수도원의 바닥은 흙더미 표면 5미터 아래, 불에 탄 벽돌로 줄지어 있는 40 x 23 x 8cm 물탱크 중간에서 발견되었다.

스투파는 동쪽으로 길게 뻗은 계단이 있는 10x10미터 크기의 정사각형이고, 스투파 바닥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코린트식 석고로 장식되어 있고 벽기둥 사이에 있는 공간은 한때 부처상과 보살상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주 스투파는 정사각형인 두 개의 작은 봉헌 스투파 옆에 있고, 스투파 안뜰의 바닥은 석회암으로 포장되었고 두루 돌레길 (pradakshinaya) 은 석회로 발라져 있었으며, 그 흔적을 지금도 볼 수 있다. 스투파 안뜰은 다양한 크기의 예배당으로 둘러 싸여 있다. 상당한 양의 작은 골동품, 예를 들어 카니슈카, 바수데바, 키다라쿠산스를 포함하여 쿠산 왕조의 동전, 화이트 훈족의 은화 1개, 유리와 조개 팔찌, 돌과 테라코타 구슬, 토기 보관 항아리, 그릇 및 작은 주둥이 항아리, 큰 구리 종과 같은 금속 물체, 철 화살촉, 단검 조각과 같은 작은 유물들, 그리고 불상과 보살상의 치장 벽토 못 머리가 스투파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진나 왈리 데리에서 가장 주목 할 만한 발견은 불교벽화이다. 벽화 파편이 수도원 정문 바닥에서 발견되었다. 그림은 부처와 보살의 모습을 각기 다른 자세와 참배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고, 입구 벽의 두꺼운 진흙 회반죽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 치장 벽토의 미세한 층의 흰색 표면에 검정색, 빨강색, 세피아 및 파랑색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벽화는 아직까지 간다라의 어느 불교 성지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바달푸르 스투파

바달푸르 지역은 진나 왈리 데리 근처 하리푸르의 줄리안 도로에 위치하고 있고, 수도원과 스투파로 구성되어 있으며, 'John Marshall'에 의해 발굴되었고, 스투파는 25 피트의 높이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수도원은 지상에서 거의 8피트 높다. 그것은 건축양식에 근거하여, (미완성 작품)으로 보인다. 건축 스타일로 이 사이트는 서기 3~5세기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모라 모라두 수도원

모라모라두 유적은 모라모라두 마을 뒤에 있는 시르수크 시에서 남동쪽으로 약 1.6km 떨어져 있다. 처음 발견 되었을 때 수도원과 스투파 모두 주변 언덕의 깊은 퇴적물에 묻혀 있었다. 눈에 보이는 구조의 유일한 부분은 폐허가 된 1.5미터 스투파였는데 도굴꾼들의 손에 파괴되었다. 분명히, 드럼 꼭대기까지 구조물의 전체 표면은 그림으로 덮여 있었다고 한다. 벽 기둥 사이의 구간과 벽 기둥의 면에는 부처님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다.



이 스투파 기단에서 발견되어 현재 박물관에 전시 되어있는 수많은 분리된 머리들 중 3.6m 높이에 이르고 평면적으로 원형이고, 스투파 주춧돌은 다섯 층으로 나뉘며 가장 낮은 층에는 코끼리와 아틀란티스 변갈아가며 있고 그리고 위층에는 벽기둥과 교차하는 틈새에 앉아 있는 부처님들이 있다.

20



피플란 스투파

피플란 스투파는 줄리안 수도원으로 통하는 도로에서 남쪽으로 약 365m 떨어져 모라 모라두와 줄리안 사이 언덕 기슭에 있다. 유적은 두 시대의 유적인데 동쪽에는 파르티아 후기 또는 쿠산 초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도원의 안뜰이 있으며 중간에 열린 사각형으로 구성된 네 면에 다양한 수도실이 있다. 안뜰 중간에는 북쪽을 향한 정사각형 스투파의 지하실이 있으며 그 옆에는 세 개의 다른 작은 스투파들이 있다. 수도원은 무거운 반-아슈라르 (semi-ashlar) 석조로 지어졌으며 북쪽에는 수도실이 구성되어 있고 남쪽에는 회의장, 주방 및 구내 식당이 있다.

줄리안 불교 스투파 및 수도원

이 스투파는 서기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스투파와 수도원이다. 두 개의 궁정에 수많은 예배당과 봉헌 탑이 있다. 이것은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위치는 이 지역에서 가장 그림과 같은 곳 중 하나로 여겨진다. 다른 사이트에는 모라 모라두 단지, 진나 왈리 데리 및 최근에 재 발굴된 바말라 스투파(희귀한 십자형 사리탑)가 있다.





22

시르캅 유적

두 번째의 고대도시인 시르캅은 기원전 2세기에 박트리아 그리스인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세워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도시는 고고학적 유적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 계획 요소들 때문에 그리스인들에게 귀속되었다. 몇 곳의 중요한 지역 중에는 왕가, 태양사, 압시달사, 쌍두 독수리 탑, 자이나교 사원이 있다.

탁실라 박물관

학문의 중심지인 탁실라는 수세기 동안 불교의 중심지였으며 대도시이고 다양한 문화 즉, 아케메네스, 그리스인, 마우리아인, 스키타이인, '파르티아인, 쿠산인, 훈족 및 결국에는 무슬림들의 만남의 장소였다. 탁실라는 이슬라마바드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판자브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탁실라의 고고학 지역은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18개의 유적지로 구성되어 있고 198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전부 등재 되었다. 탁실라는 특히 아쇼카의 통치 이후와 1세기 쿠산 시대에는 불교 간다라의 유명한 도시였다. 이 지역에서는 불교시대에 번성했던 문명은 간다라 계곡 문명으로 알려져 있다..

박물관 시간:

여름(하절기): 오전 8:30 ~ 오후 5:00

겨울: 오전 9:00 ~ 오후 4:00

매월 첫 째 월요일 휴일.

입장료:

파키스탄인: 20루피,

외국인: 500루피



23



다르마라지카 스투파 및 수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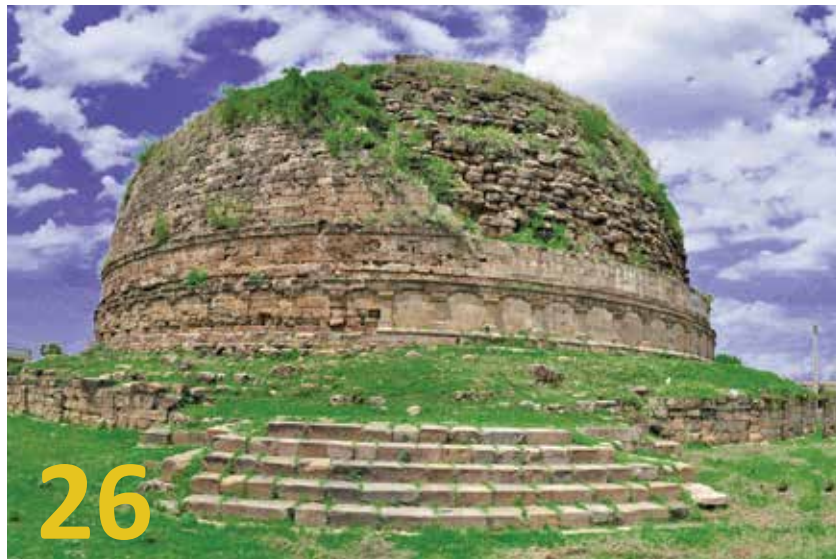
이 곳은 탁실라 지역에서 가장 큰 불교 사찰이고 역사가 기원전 3 세기에 인도를 통일시킨 위대한 마우리아 황제인 아쇼카 시대부터 시작되며 일부 불교 문헌에서는 장소 자체와 관련된 이름인 다르마라즈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학자들은 다르마라지카(Dharmarajika)가 부처님의 유해가 묻힌 장소 중 하나라고 믿고 있어 유물 보관 스투파가 되었다.

24

비르 마운드

첫 번째 도시인 비르마운드의 고고학적 유적은 약 1200 x 730 야드의 면적을 차지하는 현재의 탁실라 박물관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은 기원전 5~6세기(아케메네스 시대)부터 기원전 2 세기 인도/박트리아 그리스시대 까지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25



26

마니키알라 스투파

마니키알라 스투파는 편자브 주의 지역인 토프만키알라 마을 근처에 있는 2세기 불교 스투파이다. 이 스투파는 자타카 이야기에 따르면 부처님의 화신인 사트바왕자가 굶주린 호랑이 새끼 일곱 마리를 먹이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다.

반파키란 스투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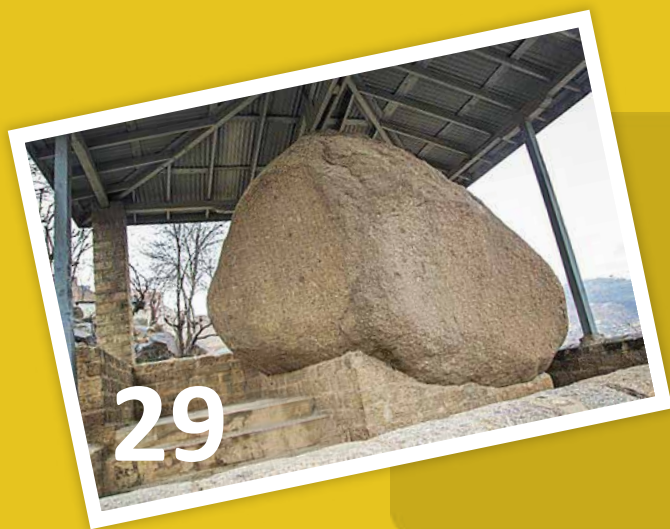
반파키란은 마르갈라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 이슬라마바드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이다. 이 스투파의 고고학적 유적은 2~5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샤알라 딘다 (Shah Allah Ditta village)에 있는 불교 동굴에서 약 2km 떨어진 반파키란 단지는 망루로 여겨졌다. 부처님의 일부 유골이 보관되어 있던 기원전 3세기의 다르마라자키 수도원으로 가는 길에 이 스투파는 여행자들, 주로 순례자들에게 이정표의 역할을 했다. 마우리아 황제 아쇼카에 의해 세워졌던 다르마라지카는 탁실라 계곡에서 약 2.5km 떨어진 반파키란에서 볼 수 있는 세계 문화유산이다.



27

아쇼카 비문

아쇼카는 제국을 확장 시키는 과정에서 기원전 260년 경에 자신이 한 도시에 가했던 슬픔에 대해 크게 후회했다. 그는 제국의 불행을 끝내겠다고 맹세하여 일련의 칙령을 발표했고 총독들에게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하라는 명령내렸고, 14개의 칙령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기원전 257년경 이후 언젠가 제국 전역에 있는 거대한 바위에 7개의 다양한 형태로 새겨졌다. 가장 완전한 살아 남아 있는 두 형태는 간다라에 있다. 하나는 마르단에서 동쪽으로 16km 떨어진 샤바즈가르히 근처에 있는 자연 바위에 있고 다른 하나는 인더스강 동쪽 아보타바드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만세라 외곽에 세 개의 바위에 있다.



만세라 암각화

만세라 바위 비문은 케이버퍼크툼화와 만세라에 있는 바위에 새겨진 마우리아 황제 아쇼카의 14개의 칙령이다. 칙령은 세 개의 바위로 잘려져 있으며 기원전 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간다라 문화의 고대 인도 문자인 카로시티에 기록 되어있고, 칙령은 아쇼카법의 업적을 언급하고 있다. 이 장소는 세계 문화유산에 포함 되기위해 제출 되었으며 현재 잠정목록에 있다. 이 곳은 고대 실크루트 카라코람(-Karakoram) 고속 도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만세라 바위 비문은 불교의 확장 및 그의 경건의 법 또는 진리를 설명하는 아쇼카의 33개 칙령의 비문 중 하나이다. 14개의 칙령에는 간다라에서 사용된 고대 문자인 카로시티 (Kharosthi) 문자로 된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샤티알 암각화

샤티알은 카라코람 고속도로(Karakorum High way)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며 행정적으로 웨이버과크툼화의 윗 코히스탄 지역에 있다. 이 곳은 불교와 조로아스터교의 상징주의 및 수백 개의 고대문자 특히 카로시티, 소그디안, 브라흐미 등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 장소에는 일부 중국어로 기록된 비문도 있다. 몇 개의 봉헌된 스투파들 옆에 있으며 거대한 스투파 조각이 바위의 표면을 덮고 있다. 거대한 스투파 근처에는 5 세기의 카로시티 비문이 있다. 비문에는 스투파를 만든 예술가의 이름 "종교적으로 독실한 지코다르카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칠라스 암각화

김기트 발티스탄 카라코람 고속도로를 따라 약 5만개 이상의 불교 암각화와 비문이 있으며 훈자(Hunza)와 샤티알(Shatial) 사이에 있는 주요 장소에 집중되어 있다. 조각품은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무역로를 따라 지나갔던 다양한 침략자, 상인 및 순례자들에 의해 남겨졌다. 가장 이른 날짜는 기원전 5000년에서 기원전 1000년 사이로 거슬러 올라간다. 칠라스는 고대 캄보자 왕국의 일부였을 것으로 보인다.



카르가 부처

카르가 부처는 길기트에서 약 9.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고학 유적지이다. 그 곳은 카르가 날라 절벽에 있는 약 50피트 높이의 거대한 입상 부처님의 조각상이다. 발티스탄에서도 발견된 조각의 양식은 아마도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3세기부터 11세기까지 길기는 불교의 중심지였다. 1931년에 약 400미터(1,300 피트) 상류 근처에서 불교 수도원과 산스크리트어 필사본이 보관된 3개의 스투파가 발굴되었다. 조각은 7세기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장소는 1931년에 길기트 필사본으로 추정 되는 것이 혁신 후 1938-1939년에 발견되었다.



만탈 부처님 바위

만탈 부처님 바위는 8 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부처님의 이미지가 새겨진 큰 화강암 바위이다. 이 바위는 길기트 발티스탄 스카르두시의 마을인 만탈에 있다. 부처님 바위는 스카르두에서 불교의 가장 중요한 유물 중 하나이다. 주요 사드파라 길과 아주 가깝다. 이 불상은 외진 위치로 인해 20세기 초반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1906년에 스코틀랜드의 여행자인 'Ella Christie'는 서부 티베트의 여행에 관한 책을 썼고 그 책에 조각상이 등장한 다음 이 장소는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감동

제작:



파키스탄관광개발공사
이슬라마바드
www.tourism.gov.pk
www.salampakistan.gov.pk

특별한감사



퀘이버파크문화 문화관광국
www.kptourism.com



고고학 및 박물관국
www.kparchaeology.gkp.pk



길기트 발티스탄 관광국
www.visitgilgitbaltistan.gov.pk



펀자브 관광 개발공사
www.tdcp.gop.pk



아쌘아티스트(SMC) 유한회사
www.assamartist.com



한국어 번역/ Korean Translation: Mr. Ahtisham Hussain
학과장, 한국어 및 문화 학과
파키스탄 국립 외국어 대학교, 이슬라마바드
<https://www.numl.edu.pk/>

유용한 연락처

- 페샤와르 박물관 (+92) 91 9210985
- 스와트 박물관 (+92) 91 9210985
- 탁실라 박물관 (+92) 51 9315477
- 퀘이버파크문화 고고학국 (+92) 51 9222752
- 펀자브 고고학국 (+92) 42 99332672





 pakistan



파키스탄관광개발공사
코사르 블록 (1층) 파키스탄 사무국, 이슬라마바드
Tel: (+92) 51 9204027, (+92) 51 9212865
(+92) 51 9212827, Fax: (+92) 51 9212853,
Email: info@tourism.gov.pk
www.tourism.gov.pk
www.salampakistan.gov.pk

